樓亭의 機能에 따른 樓亭時調의 特性

남 동 걸*

<국문초록>

누정은 대체로 승경의 요처에 자리하여 賞自然의 풍류를 극대화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곳이기에 조선조 士人들은 누정을 소유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그러므로 누정과 관련된 문학작품은 여러 장르에 걸쳐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누정시조를 누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정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산수자연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사방이 트인 공간이기에 돌아다니면서 경관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누정시조에서의 산수자연은 여타의 산수유람 시조의 감상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산수유람 시조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산수자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누정시조는 한자리에서 '눈돌리기[游目]'만으로 산수자연을 仰觀, 俯察, 遠望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둘째, 누정은 학문수양 및 강학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누정은 상대적으로 막히고 답답한 공간인 서원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은 학문수양과 강학을 하는 등 서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 산수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대부분 한시와 같이 전해지며 성현의 이름이나 고전의 문구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누정은 계회 및 시회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누정 주인의 요청에 의해 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적교류는 후에 시단 및 가단 형성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 인하대

넷째, 누정은 游娛的 酒宴의 기능을 한다. 단순한 유오적 주연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방적인 누정의 특성상 사대부로서의 일탈된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정이라도 폐쇄성이 있는 경우는 사대부들의 긴장이 이완된 형태의 작품이 나타나기도 한다.

핵심어 : 시조문학, 누정, 창작공간, 산수감상, 강학, 시단, 유오

1. 序 論

樓亭은 삼국시대 이래로 지배계층의 고급 문화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 특히 조선조에 와서는 士人들의 문화향유공간이었기에 수많은 詩人墨客들이 드나들던 장소였다. 그러므로 이곳은 문학작품 창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누정과 관련된 문학작품은 樓亭詩文(記, 漢詩)과 국문시가(시조, 가사) 등에 걸쳐 상당한 편수가 전해지고 있다. 누정에서 생성된 문학작품과 누정생활 및 누정과 관련된 작품을 통틀어 누정문학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누정문학 연구는 장덕순, 박준규 이래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1] 하지만 그 연구는 누정기나 누정한시, 누정가사에

1) 장덕순 외,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 Ⅰ』, 시인사, 1987.
朴焌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 17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8.
———,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古詩歌研究』 2 · 3,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 『湖南歌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1990.
李載奭, 「星山樓閣을 媒介로 한 文學的 交驩과 그 歷史的 意味」, 碩士學位論文, 高麗大, 1988.
金東俊, 「16세기 樓亭漢詩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 1994.

한정되어 왔으며, 시조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2]고 볼 수 있다. 누정기나 누정한시, 누정가사에 한정된 연구는 또한 산수자연과의 관련 방향으로만 연구되어 왔다. 누정기나 누정한시가 산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정이 산수와 유리될 수 없으며, 문학 주체인 사인들도 산수자연을 심신수양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정시조[3] 역시 산수시조의 한 범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누정에 대한 선행논자들의 논의를 구체화시켜 향후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누정을 배경으로 창작된 것이나 누정 주변의 경치를 보고 창작된 시조가 적지 않은 것[4]은 시조가 누정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정의 가장 주된 기능은 산수자연을 감상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정시조 중에는 산수자연을 다룬 작품 이외의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타 장르보다는 시조가 특히

成浩榮, 「朝鮮朝 樓亭詩歌의 表象」, 碩士學位論文, 仁川大, 1997.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韓國詩歌硏究』 第13輯, 韓國詩歌學會, 2003.

2) 장덕순 외, 앞의 책 ; 朴焌圭, 앞의 논문(1995)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시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장덕순은 시조 몇 수를 언급하면서 누정시로 규정짓고 있고(p.26), 박준규는 정철의 시조 작품 4수를 들고 식영정 제영작품으로 가정하고 논의하고 있다.

3) 누정에서 창작된 시조를 누정시조라고 한다. 제목이나 작품 속에 누정이 포함되어 있는 시조는 대체로 누정시조라 할 수 있다. 또한 누정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황 상 누정에서 창작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작품까지도 누정시조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누정이 나타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유람과 정의 하나로 언급되어지는 정도라면 누정시조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누정의 범주를 精舍, 齋室, 堂에까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 작품 수는 더욱 늘어난다. 심지어 산수 자연을 소재로 한 연시조(구곡계, 육가계 포함)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거공간과 관련이 있는 齋室, 堂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 그것은 시조가 즉흥적으로 창작되는 속성을 지닌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보아 시조는 흥이 나면 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점이 바로 누정의 기능과 시조를 관련시키려는 의도이다.

이 글에서는 누정시조를 누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분류해 보고, 각 유형별 특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本 論

누정시조의 유형은 누정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덕순, 박준규 등에 의해 분류[5]된 누정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시조와 관련된 기능만을 다시 재구성하였다. 그것은 첫째 산수자연의 鑑賞 공간, 둘째 학문수양 및 강학의 공간, 셋째 詩會 및 契會 등 會合의 공간, 넷째 遊娛的 酒宴의 공간 등이다. 이를 통해 각 유형 별로 나타나는 시조작품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山水自然의 鑑賞 空間

누정은 대체적으로 계곡이나 절벽 위, 산천경계나 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조선조 산수화를 보면 누정이 없는 그림이 거의 없다. 또한 樓亭名도 산수자연과 관련된 것이 많다.[6] 이는 누정이 산수 승경

---

5) 장덕순은 누정의 기능을 '유흥상경의 기능, 시단을 이루는 기능, 학문수양 및 강학의 기능, 종회나 동회 등 회합의 기능, 사장(射場)의 기능, 문루의 기능' 등으로 분류(장덕순 외, 앞의 책)하였고, 박준규는 '講學講道, 修契敦睦, 賦詩吟詠, 飮酒酬唱, 遊觀宴息' 등으로 분류(박준규, 앞의 논문, 1997)하고 있다.

6) 安啓福, 「韓國의 樓亭名 選定에 關한 硏究」, 『韓國傳統文化硏究』 第5輯, 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pp.176.

의 핵심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다. 누정은 승경의 요처에 자리하여 賞自然의 풍류를 극대화하고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조선조 士人들은 누정을 소유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은퇴하고 낙향하면 정자를 지어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이다.

> 江湖의 盟約을 두고 一生을 乾沒ᄒᆞ니
> 無情ᄒᆞᆫ 歲月의 七十이 다ᄃᆞᆺ거다
> 외히려 네 ᄠᅳᆮ들 조차 晩休亭을 이로과라 〈李景嚴, 晩休亭歌〉

> 功名과 富貴르란 世上ᄀᆞ사람 다 맛지고
> 가다ᄀᆞ 아무데나 依山帶河處에 明堂을 엇어셔 五間八作으로 黃鶴樓맛치 집을 짓고 벗님니 ᄃᆞ리고 晝夜로 노니다가 압닉에 물지거든 白酒黃鷄로 닉ᄃᆞ노리 단니ᄃᆞ가
> 닉 나히 八十이 넘거든 乘彼白雲ᄒᆞ고 玉京에 올나ᄀᆞ셔 帝傍投壺多玉女를 닉 혼쟈 벗이 되여늙을 뉘를 모로리라

위의 시조를 보면, 작자는 70이 다되어서야 동경하던 귀거래를 비로소 이루게 된다. 귀거래를 하면 누정을 지어 遊賞하겠다는 꿈이 晩休亭으로 실현된다.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지어 자연을 玩賞하고자 하는 옛날의 꿈이 이루어 졌다는 안도감조차 보인다. 이로 보면 젊었을 때부터 간직한 평생의 꿈은 누정을 지어 자연과 더불어 지내며 귀거래 하겠다는 것이다. 아래의 작품은 부귀공명은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산수간에 명당을 얻어 황학루와 같은 화려한 누각을 지어 유상하고 싶다는 소망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보면 두 작품은 누정의 인식에 있어서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즉 뛰어난 산수경계를 지닌 곳에 누정을 지어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士人들은 누정을 건립한 것이다. 당시 유자들은 대체로 이런 꿈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다.

누정시조는 자연을 감상하고 거기에서 오는 정감을 노래했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산수시와 동일하지만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람자가 산수를 감상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磯頭에 누엇다가 씨ᄃᆞ라니 ᄃᆞᆯ이볼다
靑藜丈 빗기집고 玉橋를 건너오니
玉橋애 ᄆᆞᆯ근 소릐를 자ᄂᆞᆫ 새만 아놋다 〈朴仁老, 立巖二十九曲〉

綠水靑山 깁푼 골에 靑藜緩步 드러가니
千峰에 白雲이요 萬壑에 烟霧ㅣ로다
이곳이 景槩 됴흐니 예와 놀녀 ᄒᆞ노라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산수를 조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개천을 한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청려장을 집고 이동하여 감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역시 산속을 완보하면서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면서 즐기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감상태도는 아래의 누정시조와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다.

다음의 누정시조를 보자.

굽어ᄂᆞᆫ 땅이오 우러러ᄂᆞᆫ 하늘이라
두분의 ᄀᆞᆺ을 조차 내삼겨 살아시니
계산에 풍월거느려 늙은 뉘를 몰라라 〈俛仰亭短歌 1〉

심진동 ᄂᆞ린 물이 巖下애 구븨 지어
불사주야ᄒᆞ야 정자 압희 드러오니
어즙어 洛水 이천을 다시 본 ᄃᆞᆺᄒᆞ여라 〈朴仁老, 立巖二十九曲〉

첫 번째 작품은 면앙정에서 노래한 것이다. '굽어ᄂᆞᆫ'은 俯察을 말하는 것이고, '우러러ᄂᆞᆫ'은 仰觀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앙정에서 앙관을 하니

하늘과 달이 보이고, 부찰을 하니 땅과 개천이 보인다. 이는 산수를 유람하면서 감상하는 행위는 아니다. 정자 위에서 시선만을 돌려서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俛仰亭이라는 이름에서도 보면 '俛'은 부찰을 의미하고 '仰'은 앙관을 의미한다.[7] 이로 볼 때 '면앙정'은 이러한 누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누정명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작품은 입암정사에서 노래한 것이다. 정자에서 먼 곳을 보니[遠望] 냇물이 흐른다. 이 냇물은 바위 위에서 굽이쳐 끊임없이 정자 앞으로 흘러 들어온다. 먼 곳의 풍경이 점점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는 냇물의 모습을 시선이 옮겨가는 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 자리에서 시선의 이동만으로 산수자연을 보았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산수 감상법을 '눈돌리기[游目]-산점투시' 방법[8]이라고 한다. 누정은 이런 산점투시의 감상방법이 적합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 정(亭)·대(臺)·누(樓)·각(閣)에서 관상을 하면 그 관상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리저리 눈을 돌려 살펴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과 대는 사방이 트여 있고, 누와 각엔 난간과 창이 있지만 역시 사방이 트여 있다. 사면이 경치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천천히 움직이며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9]

누정은 사방이 트여있기 때문에 사면 경치와 마주하고 있다. 사방이 트여 있다는 것은 사방을 두루 보기 위한 목적이며, 결국 누정의 위치는 仰觀과 俯察하기에 적합한 곳에 있다는 말이다. 이런 높은 위치에서는 遠景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사방이 트여있기에 여유 있고 편하게 경

---

7) '俛'자는 '구부린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음이 '부'로 되어 '俯'자와 통용된다. 이런 까닭으로 정자이름을 면앙정이 아닌 부앙정으로 불러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기도 했다.(장덕순 외, 앞의 책, pp.33-34. 참조)

8) 장파, 같은 곳.

9) 장파(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옮김, 1999, p.509.

치를 眺望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仰觀, 俯察할 수 있고, 遠望할 수 있다. 즉 시선이 가는 대로 산수를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정에 있어서의 산수 감상 시조는 이런 유목의 방법으로 대상을 보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學問修養 및 講學의 空間

누정은 학문의 체인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외계의 경색을 끌어들여, 자연과 인생의 무한하고 광활한 의경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觀賞者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10] 준다. 산수자연을 보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군자의 덕목을 배울 수 있다.

> ……해를 넘기고 庚子年의 봄에 다섯 채의 새로운 누정을 건립하였다. 높고 밝아서 제반의 제도가 알맞았다. 완성한 뒤에 이유인 선생은 제생들을 인솔하고 누정에 올라 술잔을 나누며 낙성식을 올렸다. 여러 학생들을 돌아보며 이르되, '그대들은 이 누정에 임하여 얻은 바가 있는가?'라고 물으니 제생은 대답하기를 '전에 누정을 짓지 않을 때는 모여 배우던 곳이 섬돌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책을 읽으면서 답답하던 틈에 비록 가슴의 막힘을 물리치고, 정신을 맑게 하고자 했지만, 여기 저기 돌아보아도 쉬고 놀 곳이 없고, 답답하여 잡히는 열기 씻을 것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정자에 오르니 우리의 번거로운 마음을 씻어주고, 막힌 생각이 풀리어, 산을 보면서 仁을 체득하고, 물을 보면서 智를 기를 수 있으며, 솔개와 고기가 날고 뛰는 것을 보면 도체가 밝게 드러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고 우러러봄이 배우는 일이요, 또한 한번 움직이고 조용히 멈추는 것도 배우는 일이라, 무릇 만물의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 많은 것이 우리의 존성을 기르는 데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1]

---

10) 葉朗, 『韓國美學史大綱』, 李鍾煥 譯, 百選文化社, 2000, p.479 참조.

11) 『東國輿地勝覽』, 卷33, 全州府學校, ……越庚子春 建新樓五楹 穹隆爽塏 制度適宜 旣告成 先生率諸生 登臨觴而落之 顧謂諸生曰 二三子之於斯樓 其有所得者乎 曰昔樓之未建也 學舍猒階 我輩讀書 吾伊之暇 雖欲祛塞鬱暢精神 顧無息焉游焉之地 悶悶然 執熱而思濯也 今登斯樓 滌我煩襟 雪我滯思 觀乎山 可以體其仁 觀乎水 可以養其智 觀鳶魚之飛躍 而知道體之昭著 一俯仰 學也 一動靜 亦學也 凡

누정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학문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 방법이 없다. 또한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으니 학문적 진전이 있을 리 만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누정의 건립과 동시에 일시에 해결이 된다. 더 나아가 누정은 휴식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누정에서 산수자연을 보면서 樂山樂水의 맛을 느끼고, 漁躍鳶飛를 보며 道體가 밝게 드러남을 실제 체험케 된다.

仰觀ᄒᆞ니 鳶飛戾天 俯察ᄒᆞ니 魚躍于淵
이제야 보아 하니 上下理도 分明하다
하물며 光風霽月 雲影天光이야 어닉 그지 잇스리 〈申 墀, 永言十二章〉

이 작품은 작가 신지(1706-1780)가 그의 고향인 점촌에 세운 반구정에서의 풍경을 읊은 시조이다. 仰觀과 俯察의 정경을 그렸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하늘이나 연못은 관념에 의해 구성된 정경이다. 실제로 하늘과 연못은 보았겠지만, 소리개가 날고 고기가 뛰는 모습은 實在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中庸』의 「비은장」을 그대로 용사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鳶飛戾天'이나 '魚躍于淵'은 퇴계를 비롯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조선조 사대부들이 산수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태도 때문이다.

누정은 산수자연을 보며 그것들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강학의 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결국 누정이 서원의 역할도 했다는 의미이다.

나의 벗인 유학자 곽지숙은 뜻을 돈독히 하고 배움에 힘써 師門에서 바르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頹壞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더욱더 人世에 마음이 없어서 머리를 감추고 명예를 피하여 산중에서 靜養하였다. 거처는 주위의 경관이

目寓耳得萬物之識 識者 何莫非吾養性之助乎……

빼어나고 그 위에 정자가 있으며, 편액을 景寒이라 하였으니 景慕寒泉(한천을 사모하여 우러러 봄)의 뜻을 취한 것이다. 이에 이곳에 살면서 書史에 마음을 기울여 위로는 千古의 선비와 벗을 하고, 때로 감흥이 일어나면 꽃을 찾고 버들 길을 노닐며, 백로를 가까이 하고 물고기를 완상하며, 비파를 가지고 국화 핀 오솔길을 거닐며, 눈 내린 밤에 친구를 찾아가니, 山間 四時의 즐거움을 누가 그와 다투리오. 또한 즐거움이 지극하여 감흥이 일어나면 문득 시와 노래를 지어 그로써 자기의 뜻을 부치기도 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니, 그 舜慕華祝이 진실로 이익을 잊고 先哲을 우러르며 죽은 스승을 가슴 아파하는 뜻이 말 밖에 넘쳐나니,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진실로 이른바 世敎에 관여함이 있어 단지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을 노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12]

위는 宋元錫이 친구인 郭始徵의 『景寒亭詩歌』에 부치는 跋文이다. 경한정의 설립목적은 그의 스승인 송시열을 기리기 위함이지만 그 기능은 학문수양 및 강학에 있다고 하겠다. '書史에 마음을 기울여 위로는 千古의 선비와 벗을 하고'라는 말은 독서를 하며 학문수양을 하겠다는 말이다. 이곳에서 독서를 하다가 눈을 들면 산수경관이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잠시 책을 접고 산수를 감상한다. 그러다가 흥이 나면 '시로 자기의 뜻을 부치기도 하고 노래를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여기서 보면 노래[시조]는 사람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학 및 학문 수양적 기능을 잘 나타낸 작품으로는 郭始徵[13]

12) 宋元錫, 「樂村景寒亭感興詠懷歌詩跋」, 郭始徵, 『景寒亭詩歌』, 吾友郭斯文智淑篤志爲學 爲師門之所許可者雅矣 自有頹壞之慟 益無人世之念 縮首避名 養靜山中 所居有泉石之勝 亭於其上 扁以景寒 蓋有景慕寒泉之義也 於是焉棲息 玩心書史 尙友千古 時或興至 則傍花隨柳 狎鷺觀魚 菊逕携琴 雪夜訪友 山間四時之樂 誰爭子所 而亦或樂極感發 則輒賦詩而作歌 以寓己志 詔餘人 其舜慕華祝 固窮忘利 仰先哲 傷亡師之意 溢於言外 而無非自至誠中流出者 則眞所謂有關於世敎 而不但爲風花雪月之詠而已者 較然矣.(朴乙洙 編著, 時調의 序跋類聚, 아세아문화사, 2000. 재인용)

13) 郭始徵(1644-1713) : 호는 景寒亭, 자는 敬叔, 智叔 본관 淸州, 宋時烈의 문인

의 「景寒亭感興詩歌」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이 작품은 특이한 창작 과정을 지니고 있다. 그의 自序에 보면

> 무릇 樂村歌는 한가한 가운데 사물에 감동하여 마음속에 품은 것을 노래한 것이다. 四韻(律詩)과 絶句 각각 두 수를 짓고, 句마다 短歌 하나씩를 더하여 그 趣旨를 해석하였으니 총 24장이다.[14]

라고 하여 시조의 창작과정을 말하고 있다. 사물에 감흥이 일어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율시 2수(16구)와 절구 2수(8구)의 한시를 짓는다. 이 한시의 각 구별로 각 1수씩의 시조를 지어 24수의 시조작품이 나왔다는 것이다.

> 樂村의 精舍를 짓고 寒泉을 想像ᄒᆞ며
> 朱夫子 道德을 千載下의 景慕ᄒᆞ니
> 朝夕의 數三冠童으로 강학고져 ᄒᆞ노라 〈郭始徵, 景寒亭感興歌二十四章〉
>
> 烏床上 黃卷中의 夫子를 외와시니
> 顔曾은 後先ᄒᆞ고 程朱는 左右로다
> 이中의 즐기는ᄆᆞᄋᆞᆷ이 늙는 줄을 몰래라 〈郭始徵, 景寒亭感興歌二十四章〉

첫 번째 작품은 율시 중 '我有景寒菴'이라는 句의 취지를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자[精舍]의 건립 목적이 나와 있다. '내가 있는 경한암은 寒泉[15]을 想像하며, 주자의 道德을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景慕

이다. 천거로 叅奉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己巳換局 때 퇴직, 송시열이 제주도에 安置되자 그 무고함을 상소하였고, 스승이 賜死된 후에 泰安에서 두문불출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1703년 목릉참봉이 되고, 이어 王子師傅로서 어린 제2왕자 延礽君(英祖)을 輔導, 후에 別提 利仁道察訪을 역임하였다.

14) 郭始徵, 『景寒亭詩歌』, 「樂村景寒亭感興詠懷歌詩序」 夫樂村歌者 乃閑中感物 而詠所懷者也 概作四韻及絶句各二首 而句各有一短歌 以釋其趣 總二十四章也

15) 한천이란 그의 스승인 우암 송시열이 은거생활을 하며 학문에 몰두했던 곳으로 그를 배향하는 한천서원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하니 이에 밤낮으로 제자들에게 강학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은 '觀書慕聖賢'이라는 漢詩句와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학문수양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책을 보며 책 속의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회와 증자 및 宋代의 程顥와 程頤와 주자를 추모'하며, 이들과의 책 속의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늙는 줄 모른다는 뜻이다.

여기서 '我有景寒菴'이나 '觀書慕聖賢'과 같은 漢詩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느낌이 시조에는 나타나 있다. 이렇듯 시구마다 시조로서 해석을 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어리석은 내가 감히 두 선생의 작품에 대해 망령되이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뜻을 말하고 배움을 말한 것은 사물을 만나 감흥을 비기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성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읊조리고 완상하며 혹은 노래 부르고 듣게 하여, 오직 즐거워하고 근심을 잊어버려 늙음이 장차 이르러 옴을 알지 못하게 하니, 읊조리고 그 맛을 음미하는 가운데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즉 그것이 배움에 뜻을 둔 자에게 약간의 보탬이 되는 것은 그 辭語의 비루하고 졸렬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며, 古人이 종신토록 外物을 사모하지 않은 것 또한 이와 가까운 것이다. 참으로 退溪선생이 말한바 '노래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유익하게 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을 아마도 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16]

퇴계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한시는 노래로 불릴 수 없으므로 시조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노래로 불리게 되면 근심도 잊어버리고 욕심도 적게 하기 때문에 배움에 뜻을 둔 자(제자들)에게 보탬이 된다. 이로 인해 노래 부르는 자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모두 유익하다. 이 때문에 시

16) 郭始徵, 위의 책, 愚雖不敢妄擬於兩先生之所作 然其所以言志言學 莫非寓物比興而亦不悖語情性者 故或自詠而玩之 或使歌而聽之 則不唯樂而忘憂 不知老之將至 亦不無淸心寡慾於吟咏玩味之間也 然則 其有少補於志學者 固不在辭語之陋拙 而古人之終身 無慕乎外者 亦或庶幾也 信乎 退翁所謂歌者聽者之不能無益者 恐亦可見於此也歟.

조를 창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조는 대부분 한시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보면 누정은 학문수양 및 강학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누정은 상대적으로 막히고 답답한 공간인 서원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강학을 하는 등 서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산수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대부분 한시와 같이 전해지며 성현의 이름이나 고전의 문구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3) 詩會 및 契會의 空間

누정은 詩會나 契會 등 모임의 공간이기도 하다. 누정이 절경지에 있기에 찾는 객들이 많다. 이들 중 同志者들끼리는 더욱 자주 모이게 마련이다.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미리 추렴하여 절경지에 공동으로 누정을 건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로 건립된 누정이기에 이곳에서는 모임이 끊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계회나 시회가 나타나게 된다.

> 공(尹衢)은 유배되었을 때의 나이 겨우 26세였다.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 榮進할 뜻을 버리고, 산수에 遨遊하여 吟詠自適하였다. 崔山斗, 柳成春 등 여러 선비, 그리고 石川 林億齡, 靈川 申潛, 訥齋 朴祥 등의 선생들과 날로 相遊하였다. 또한 여러 선비들과 詩社의 모임을 갖고, 佳辰에 즈음하여 편지로 부르고, 말(馬)을 함께 하여 모이되, 미처 이르지 못한 자에게는 大白(막걸리)의 罰酒를 내리고, 혹은 시를 지어 酬唱하였는데 이렇게 함이 수십 년이 되었다.[17]

17) 尹泳杓, 「棠岳文獻」 禮, 海南尹氏文獻, 卷 1, 橘亭公. 公被謫時 年僅二十六歲 而自還鄕絶意榮進 遨遊山水 吟詠自適 日與崔 柳諸公 及石川靈川訥齋先生相遊 且與諸公爲詩社會 每花辰雪朝 折簡 招邀聯騎相會 有不及者 罰以浮白 或以詩相謔 如是者 盖數十年 ; 朴焌圭, 朝鮮 前期 湖南詩壇의 硏究, 湖南文化硏究 第25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997, p.58. 재인용.

관직에 뜻을 버리고 고향 장흥에 돌아와 누정을 세우고 이곳에서 마음에 맞는 벗들과 날로 교유하며, 시회를 갖는다. 멀리 담양에서도 말을 타고 달려와 이 모임에 참여를 했을 정도이다. 멀리서 오더라도 늦으면 벌주를 마시고, 시를 지어 수창해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에 맞는 친구와 승경지의 누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건립한 목적을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 있다.

> 경신년 공이 36세에 일찍이 젊어서 소과에 급제하여 어버이를 영화롭게 했으나,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창평의 성산에 서하당을 짓고 노후의 생활을 계획했다. ……하서와 석천을 스승으로 삼고 송강, 고봉, 제봉 제현들과 도의를 사귀고 서로 도우며 왕래가 그치질 않았다. ……또한 작은 정자를 지어 석천과 더불어 새벽과 저녁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강토하는 사귐에 이르렀는데 식영정이 이곳이다.[18]

김성원이 자신이 지은 서하당과 그의 스승인 석천을 위해 지은 식영정에서 당대의 문호들인 송강, 고봉, 제봉 등과 교유하면서 講討 및 시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누정이 지어지면 누정주인과 시적 교의를 갖고 그곳을 출입하며 시적 풍류를 즐김으로써 누정제영을 이루게 된다. 이는 누정이 일반적으로 승경지에 건립됨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된다. 자연히 모임의 중심지가 된다.

다음의 시조를 보자.

> 滿山 烟雨中에 수를 싯고 죄 오시니
> 小亭 風景이 오늘날 더욱 됴타
> 모ᄃᆞ신 珍重ᄒᆞᆫ 뜯돌 니줄 주리 이스랴 〈金得研, 契友齊會歌〉

---

18) 金成遠, 『棲霞堂遺稿』, 年譜 庚申條, 公三十六歲 嘗言 一少成少以榮親矣 不服應擧 築棲霞堂于昌平之星山 爲終老計……以河西石川爲師 松江高峯霽峯諸賢爲道義交 失相壎 往來不絶……又嘗構一小亭 推與石川 晨夕陪從 講討交至 卽息影亭…….

草亭은 다믄 三間이오 池塘은 겨오 半畝로다
무서술 보려 ᄒᆞ야 비 오는 ᄃᆡ 쏘 오신고
이 날을 ᄇᆞ리디 아니 ᄒᆞ시니 그를 감샤ᄒᆞ야이다 〈金得研, 契友齊會歌〉

위의 작품은 계회 중에 지은 작품이다. 이는 일견 보면 누정의 역할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누정의 역할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작품 중장의 '小亭의 風景이 오늘날 더옥 됴타'에 보면 정자의 주변 풍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옥'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둘째 작품에서 보면 초장에 '草亭은 다믄 三間이오 池塘은 겨오 半畝 로다'에서도 정자가 三間이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게다가 반무[19]나 되는 연못까지 있으니 말이다. 예컨대 누정과 연못의 긴밀한 관계는 조선 이전의 정원에 "모정을 짓고 연못을 팠"던 이공승이 그 곳을 "손님이나 자제들이 찾아올 때 시와 술로 즐기"[20]는 곳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 기록에서 산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누정이 있기에 계원들의 집합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광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술을 싣고 모두 모인다. 이러한 계원들의 열성과 수고로움이 가뜩이나 아름다운 소정 주변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모이신 참뜻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궂은 날씨도 마다 않고 찾아오는 계원들,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주인이 정자를 매개체로 하여 합일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은 누추한 초정에 무엇을 보려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는가라면서 契會日을 잊지 않고 찾아준 계원들을

19) 六尺 四方을 '步'라 하고, 百步가 한 '畝'가 됨.
20) 『고려사』 권99 열전12 이공승, 結茅宇穿沼…賓客子弟有造謁者輒以詩酒. 『고려사』나 『동국여지승람』은 물론 여러 기록을 통해 누정과 연못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연못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시조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향후 과제로 삼을 만하다.

감사해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지은 것이다. 이 시조를 지으면 객들의 답시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단이 형성되는 것이다.[21] 시단은 '詩言志, 歌永言'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가단이라는 명칭과 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22]. 바로 이러한 누정의 기능이 조선후기 가단 형성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遊娛的 酒宴 空間

술과 기녀를 동반한 遊娛를 위한 酒宴의 공간이다. 물론 주연은 契會나 詩會 등의 모임에서도 술과 기녀를 동반한 주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모임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遊娛를 목적으로 누정을 찾은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遊娛의 공간이라는 말은 단순히 놀고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유오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대부의 도의를 망각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누정은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작품과는 차별이 된다.

> 鐵을 鐵이라커든 무쇠 錫鐵만 여겻더니
> 다시보니 正鐵일시 的實ᄒᆞ다
> 맛촘에 골무풀무 잇더니 녹여볼까 ᄒᆞ노라 〈眞玉〉
>
> 玉을 玉이라커든 荊山白玉만 여겻더니
> 다시보니 紫玉일시 的實ᄒᆞ다
> 내게 솔송곳잇더니 뚜러볼까 ᄒᆞ노라 〈鄭澈〉

정철에게 수작을 眞玉의 작품과 그 시조에 화답하여 지은 정철의 시조이다. 여기에는 '골무풀무'니 '솔송곳'과 같은 성기를 은유한 단어까지

---

21) 박준규, 앞의 논문, 1997 참조.
22) 丁益燮, 「16世紀 湖南歌壇硏究」, 『時調學論叢』 5輯, 1990, p.5 참조.

등장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진옥은 정철의 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이 작품이 지어진 공간은 둘만의 사랑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공간은 폐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사대부로서도 긴장의 이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누정도 이러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수작적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山亭이고 밤일 경우이다. 여기에는 기방과 같은 폐쇄성이 있기 때문이다.

紅葉은 翠壁에 날고 黃花는 丹崖에 퓌져
楚月이 발가는데 玉簫仙娥ㅣ 撫琴來라
어즙어 大醉長歌ᄒᆞ고 弄月歸를 ᄒᆞ더라 〈安玟英〉

이 작품은 안민영의 『金玉叢部』에 실린 작품으로 '단애의 큰 모임을 가진 이들 후인 구월 보름에 山亭에서 다시 작은 酒宴을 베풀고 세 명의 기생을 청하여 밤이 다하도록 질탕하게 놀았다.'[23]라는 내용의 附注가 있다. 이는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힌 것으로 여기에는 산에 있는 정자에서 창작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翠壁'이니 '丹崖'라는 말로 보아 人家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인 듯하다. 이러한 곳이니 기녀들과 질탕하게 놀아도, 크게 취하여 노래를 불러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음의 작품은 사대부로서의 일탈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이기에 그렇다.

完山裏 도라드러 萬頃臺에 올라 보니 三韓古都에 一春光景이라
錦袍羅裙과 酒肴爛熳ᄒᆞᆫ듸 白雲歌 ᄒᆞᆫ曲調를 管絃에 섯거내니
丈夫의 逆旅豪遊 名區壯觀이 오늘인가 ᄒᆞ노라

23) 安玟英, 『金玉叢部』 22. (丹崖大會之後二日 卽九月望日也 更設小酌於山亭 請三妓 盡夜佚宕)

逆旅豪遊하던 중에 삼한의 고도인 전주의 만경대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비단 도포를 입은 풍류객과 비단 치마를 입은 기녀들이 한데 어울려 술판을 벌인다. 술과 안주가 가득한 가운데 管絃에 맞추어 부르는 기녀들의 백운가에 흥이 오른다.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다가 취흥까지 더해지니 더욱 장관이다. 이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노랫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취기에 노랫가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에는 흩어진 모습을 찾을 수 없다.[24] 그것은 산중에 있는 누정이지만 낮이기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밤이라는 시간이어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大空亭 달 발근 밤의 一尺端簫 비기 안고
任一樂 ᄒᆞᆫ 曲調의 醉ᄒᆞᆫ 슐이 다 싹거다
兒孩야 슐 가덕 부어아 醉코 놀어 ᄒᆞ노라

달 밝은 밤에 정자에 앉아 단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한 곡조의 노래에 먹은 술이 다 깨었다. 하지만 술이 깨면 흥도 깨어진다. 이에 동석하고 있던 기생아이에게 한 잔 가득 술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취흥을 계속 유지하여 밤이 다하도록 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기에도 사대부적 규범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누정이 인가의 근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結 論

이상과 같이 누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누정시조를 분류한 후 그 특성

24)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6, pp.300-309 참조.

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누정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산수자연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사방이 트인 공간이기에 돌아다니면서 경관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누정시조에서의 산수자연은 여타의 산수유람 시조의 감상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산수유람 시조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산수자연을 감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누정시조는 한자리에서 '눈돌리기[游目]'만으로 산수자연을 仰觀, 俯察, 遠望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둘째, 누정은 학문수양 및 강학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누정은 상대적으로 막히고 답답한 공간인 서원에 비해 교육효과가 높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은 학문수양 및 강학을 하는 등 서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산수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의 시조는 대부분 한시와 같이 전해지며 성현의 이름이나 고전의 문구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누정은 계회 및 시회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누정 주인의 요청에 의해 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적교류는 후에 시단 및 가단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넷째, 누정은 游娛的 酒宴의 기능을 한다. 단순한 유오적 주연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개방적인 누정의 특성상 사대부로서의 일탈된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정이라도 폐쇄성이 있는 경우는 사대부들의 긴장이 이완된 형태의 작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글은 누정문학의 장르별 특성을 변별하려는 試論으로, 누정시조에 국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누정시조의 변별력은 타 장르와의 대비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棲霞堂遺稿』
『金玉叢部』
『東國輿地勝覽』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韓國詩歌硏究』 第13輯, 韓國詩歌學會, 2003.
金東俊, 「16세기 樓亭漢詩 硏究」, 碩士學位論文, 서울대, 1994.
金相珍, 朝鮮中期 연시조의 硏究, 민속원, 1997.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硏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1990.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朴焌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硏究』 17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988.
———, 「松江 鄭澈의 樓亭題詠攷」, 『古詩歌硏究』 2·3,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 『湖南歌壇의 硏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朴乙洙 編著, 時調의 序跋類聚, 아세아문화사, 2000.
成浩榮, 「朝鮮朝 樓亭詩歌의 表象」, 碩士學位論文, 仁川大, 1997.
孫五圭, 『山水文學硏究』, 釜山大學校 出版部, 1994.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安啓福, 「韓國의 樓亭名 選定에 關한 硏究」, 『韓國傳統文化硏究』 第5輯, 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李載奭, 「星山樓閣을 媒介로 한 文學的 交驩과 그 歷史的 意味」, 碩士學位論文, 高麗大, 1988.
장덕순 외,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 Ⅰ』, 시인사, 1987.
丁益燮, 「16世紀 湖南歌壇硏究」, 『時調學論叢』 5輯, 韓國時調學會, 1990.
崔珍源, 『韓國古詩歌의 形象性』,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所, 1996.

葉朗, 『韓國美學史大綱』, 李鍾煥 譯, 百選文化社, 2000.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옮김, 푸른숲, 1999.

〈Abstract〉

The Characters of Pavilion Si-Jo According to its Function

Nam Dong-Geol

A pavilion is located in the place with beautiful scenery, which maximizes the poetical features of nature. So a scholar in the Chosun Dynasty had the dream of possessing it. This trends of the Chosun scholar resulted in producing lots of literary works related with the pavilion. In this thesis, I researched the characters of Pavilion Si-Jo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 of pavilion.

First, the pavilion, which is surrounded by the beautiful scenery, is a good place to see the beauty of nature. It is needless to walk around to see the scenery thanks to its open structure. So the feeling in the pavilion Si-Jo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ightseeing Si-Jos: those show the way of seeing the scenery walking here and there, but this shows the way of seeing the scenery only just looking up, looking down, and looking in the distance.

Second, the pavilion functions as an academic place. In this case, it can be said that it functions like a lecture hall. It is more effective to study in the pavilion than in the closed structure, a lecture hall. Furthermore, the scholar studying in the pavilion understand the principle of nature with seeing the beautiful mountain and river, and it can be a place for growing a vast-flowing spirit. This kind of poetry has been handed down with the Chinese poetry, and the character

who operated the pavilion often appears in the work.

Third, the pavilion functions as a space for a fraternity or poetry circles. The poetic exchange was conducted by host of pavilion, which is the key ingredient for organizing a poetry circles.

Finally, the pavilion functions as an entertainment. Although it is a space for an entertainment, there is no deviation as a man of novel birth. If the pavilion has the feature of closeness, there are sometimes works which shows the deviation of them.

Keywords : Si-Jo, Pavilion, Writing space, Natural appreciation, Research, Poetry circles, Entertainment